

경찰, ‘뇌물수수 의혹’ 서거석 교육감 ‘불송치’

“사필귀정... 전형적인 흑색선전 명확”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송치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불송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A씨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의 자녀를 장학사로 승진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번 경찰 발표로 의혹은 탈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며 “장학사 선발은 3단



서거석 교육감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장학사 선발, 교육감이 돈 받고 승진시킬 수 있는 구조 아나
분명한 사실은 전북교육 편혜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 날조극”

계 시험절차에 따라 논술시험과 상
호토론, 면접, 동료평가 등을 거쳐

이뤄진다. 이는 교육감이 돈을 받고
승진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27일, 아침 10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주우전중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10분 독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아침 10분 독서, 하루 여는 가치있는 습관”

서거석 교육감, 전주우전중 방문... 10분 독서 참여 학생·교직원 격려

서거석 교육감은 27일 아침 10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주우전중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10분 독서 현장을 살펴보고, 교직원을 격려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우전중학교(교장 이은경)는 교사와 학생이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10분 동안 아침 독서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한 문장 기록하기, 친구와 함께 책 ‘교환하기’, 책과 연계한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 실시 등 책 읽는 학교 문화 확산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아침 10분 독서에 참여하고 있는 교실을 찾아 학생들에

게 책 읽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아침 10분 독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매우 가치 있는 습관”이라며 “독서를 통해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은 물론, 독서가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바꾸는 힘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전북교육청,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완주꿈이공에서 교육지원청 재난업무담당자 회의를 열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학교 및 기관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비상연락망 현행화 △풍수해 예보시 학사일정 조정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학교 점검 △풍수에 피해예방 행동요령 교육 등이다. 특히 재난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비해 비상단계별로 상황에 맞는 전담반을

구성해 교육부·교육지원청·각급학교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상황보고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재난단계 경계 이상 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재난상황 보고 및 대응을 상황관리전담반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기간은 태풍·호우는 10월 15일까지, 폭염은 9월 30일까지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여름철 재난대비 상황관리를 위해 사소한 위험요소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사전점검과 상황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항간에는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더욱이 경찰이 수사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일부 언론이 부풀려진 내용을 보도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서 교육감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건은 전북교육을 편혜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라며 “또한 거짓으로 전북교육을 흔들려는 세력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피의사실을 꾸미고 부풀려 보도한 언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전북교육은 한 치의 흔들림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 제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힘내서 달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교육 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28~29일 고교생 대상

JBNU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진로를 고민하는 고교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JBNU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8~29일 이틀간 진수당과 전대학술문화관 등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고교생과 교사, 학부모 등 3,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장에는 인공지능 및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의약계 등 102개 학과가 각각 부스를 설치해 각 학과와 전공에 대한 특성과 진로 등에 대해 고교생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이 직접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영국 버튼 앤 사우스

더비셔 대학교 국제교류 성료

전주기전대학교는 최근 영국 Burton and South Derbyshire College(BSDC)와의 국제교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BSDC와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 강화와 함께 한국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K-FOOD와 K-BEAUTY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방문단은 지난 17~24일 BSDC 대학을 공식 방문해 △양교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협의 △교직원 및 재학생 대상 현장 교류 △교육시설 및 시스템 벤치마킹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창업보육센터

BB프리즘네트워크 공식 출범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창업보육센터는 27일 ‘BB프리즘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BB프리즘네트워크’는 전주비전대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군산대, 호원대, 우석대, 예코인채전자 창업보육센터가 참여한 다자간 협력체다.

이번 네트워크는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세정 목적 초음파 세척기 코팅 장치로 활용 재해석

전북대 김태욱 교수팀, 초음파로 나노소재 코팅 기술 개발

전북대학교 김태욱 교수(유연인쇄전자 전문대학원, JBNU-KIST 산학연 융합학과) 연구팀의 김승연 박사과정생(주저자)이



김태욱 교수



김승연 박사과정생

접착력(반데르발스 힘)을 극대화해 안정적이고 정밀한 다층 조립이 가능하다.

또한 표면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제

어함으로써 초음파만으로 마스크 없이 정밀한 나노 패턴 형성까지 성공했다. 이를 통해 공정을 간소화하면서도 고성능 소자 제작의 가능성을 크게 넓혔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나노소재 조립 기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되며, 세계적 권위의 재료과학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IF=27.4, JCR 상위 1.9%)’ 2025년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기존에 단순 세정 목적으로 쓰이던 초음파 세척기를 혁신적으로 재해석했다. 용액 속의 2차원 단결정 구리 나노시트(Cu NS)와 원하는 기판을 초음파와 조사 장치에 함께 넣으면, 복잡한 3차원 기하구조 위에서도 균일하고 다층의 전도성 필름이 자가조립되는 기술이다.

이 과정은 초음파에 의해 발생하는 캐비테이션(cavitation) 현상을 기반으로 한다. 초음파가 미세 기포의 폭발적 붕괴를 유도해 나노시트를 고속으로 기판 표면으로 밀어내면서 기계적 부착이 이뤄지는 원리다.

특히 나노시트의 넓은 표면적과 단결정 구조가 기판과의 강력한

이 기술을 이용해 연구팀은 유리 모세관에 전도성 구리 나노시트 필름을 코팅하여 3차원 튜브형 발열체도 제작했다. 이 발열체는 낮은 전압(2.5V)으로도 60°C의 우수한 발열 성능을 보여 웨어러블 기기 및 유연 전자소자, 바이오 히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 세정 장치를 고성능 코팅 도구로 탈바꿈한 강력한 기술 전환의 혁신 사례”라며 “구리뿐 아니라 실버 등 2차원 금속 나노소재에도 폭넓게 적용 가능해 범용성이 높은 플랫폼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국가전략기술소재개발사업과 나노커넥트사업,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전북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부산대, 전남대 연구팀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장은성 기자

공정·청렴 계약문화 조성 기여

전북교육청, S2B 청렴계약 개인부문 공로상 등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부문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부문에서는 익산교육지원청이, 학교 부문에서는 전북해화학고·전주영성고등학교가, 개인부문에서는 본청 최선자 채무과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표창은 기관별 S2B 이용 실적 및 전년 대비 증감률 등을 평가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조달 건수 4만3,616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 조달 금액은 602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S2B에 전북교육장터 코너를 개설해 지역 제품 우선구매에 앞장서왔고, 계약업무 운영 개선을 통한 계약담당자 교육 확대, 계약실무편람 제작·보급, 1:1 맞춤형 계약 컨설팅 및 멘토링제 운영,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작성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최선자 채무과장은 “S2B 청렴계약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 얻은 성과”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2기 신청접수

전북교육청, 내달 4일 오후 6시부터... 초 3학년까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talking class) 2기 모집에 나섰다.

신청은 6월 4일부터 가능하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는 지난해까지 운영됐던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의 새로운 이름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며, 원어민 강사와 학생 1:3 수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1기 때 초4~고3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것을 2기는 초3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2기 수업은 주 2회·1차시당 30분씩, 9주간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6월 4~18일까지 온라인사이트(https://www.jhenglish.co.kr/)에 접속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원어민 화상영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